

# G-Brief

발행일 2019. 1. 28 | 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 Brief 제26호 | 집필자 송부용 선임연구원(bysong@gndi.re.kr)  
양인선 전문연구원(isyang@gndi.re.kr)

## 2019년 경남경제산업 전망과 대응자세

- 미중간 통상분쟁, 프랑스 · 이탈리아 등 EU권의 불안, 노딜 브렉시트, 중국성장률 둔화, 유가 폭락, 기후불안정 등 세계경제환경 불확실성 가중. 세계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3% 중반의 높은 성장률 전망
- 반도체와 내연기관형 자동차 중심의 우리나라는 2% 중반의 성장률 예상
- 경남은 선박부문이 회복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가져 2%의 성장률 기대. 건설투자의 하락과 낮은 설비투자가 관건
- 도내 기계, 금속 · 비금속제조업 등 업황은 밝지 못함. 항공과 수송기계부품, 가전과 전장업은 선전 기대. 1차산업 부문은 지난해 수준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유통업의 어려움은 여전할 전망

### 1.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세계경제

#### 세계경제환경

-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이 심화된 가운데 남미권의 경제위기, 터키 · 미국 간 교역갈등 등 글로벌 경제불안과 불확실성 가중
- 프랑스 정치 불안, 이탈리아 포퓰리즘 심화,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은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2018년 10월 국제 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하반기유가 급락. 산유국의 감산 합의 및 대이란 제재, 글로벌 경기둔화 등 유가 상 · 하방 요인이 산재
- 브라질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높은 성장률을 이끌면서 기록할 전망

#### 세계경제전망

- 2018년의 세계경제는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기관별로 연간 3.7%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 2018년 미국과 유로지역은 2%대의 안정적 성장을, 2019년에 미국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지역은 지난해와 유사한 1%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전망

글로벌 경제불안과  
불확실성 가중

- 중국은 2019년에도 6%대의 고성장이나 매년 점진적 하향추세로 전망됨

표1. 2019년 세계 경제전망

구분	한국은행				KIEP			
	한국은행	KIEP	OECD	IMF	한국은행	KIEP	OECD	IMF
세계	3.7	3.7	3.7	3.7	3.6	3.5	3.5	3.7
미국	2.8	2.8	2.9	2.9	2.5	2.3	2.7	2.5
유로	2.0	2.0	1.9	2.0	1.8	1.8	1.8	1.9
일본	1.1	1.0	0.9	1.1	0.9	0.8	1.0	0.9
중국	6.5	6.6	6.6	6.6	6.2	6.3	6.3	6.2

자료) 한국은행(2018.10); KIEP(2018.11); OECD(2018.11); IMF(2018.10).

## 2.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로 새로운 성장모멘텀 필요

### 2018년 수준의 경제성장률

- 우리나라는 2018년에 2.6~2.8%로 2%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2018년보다 다소 낮은 대체로 2% 중반대로 전망(2.5~2.7%)
- 민간소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설비투자 둔화 및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예상, 건설투자도 지난 오랜 기간 유사하게 높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

2018년보다 낮은  
2% 중반대 성장 예측

표 2. 주요 민·관 경제연구소 2019년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18년							2019년						
	OECD	KDI	한은	국회 예산처	KIET	LG	현대	OECD	KDI	한은	국회 예산처	KIET	LG	현대
경제성장률	2.7	2.7	2.7	2.7	2.7	2.8	2.6	2.8	2.6	2.7	2.7	2.6	2.5	2.5
민간소비	2.8	2.8	2.7	2.8	2.8	3.0	2.7	2.7	2.4	2.7	2.7	2.6	2.6	2.4
건설투자	-	-3.6	-2.3	-1.5	-2.7	-0.8	-2.4	-	-3.4	-2.5	-2.4	-3.1	-1.4	-2.9
설비투자	-	-1.8	-0.3	0.8	-2.5	-1.2	-0.6	-	1.3	2.5	2.3	1.9	-2.0	0.4
소비자물가	1.6	1.6	1.6	1.6	-	1.5	1.6	1.9	1.6	1.7	1.8	-	1.4	1.7
실업률	3.9	3.9	3.8	3.8	-	3.8	3.8	4.0	3.9	3.8	3.8	-	3.9	3.8
수출	4.7	8.7	3.5	5.2	6.4	6.5	6.2	4.5	4.6	3.2	2.4	3.7	4.1	3.7
수입	1.9	12.7	2.1	11.1	11.9	12.9	-	3.1	5.4	2.7	3.1	4.5	6.5	-

자료) OECD('18.11); 한국개발연구원(KDI)('18.하반기); 한국은행('18.10); 국회예산처('18.10); 산업연구원(KIET)('18.11); LG경제연구원('17.12); 현대경제연구원('17.12).

### 반도체, 자동차 수출증가세 감소 우려

- 세계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스마트폰과 완성 자동차 수출세 크게 위축

### 3. 조선업 회생시그널로 기회의 경남경제

#### 2019년 경남경제 전망

- 경남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중·후반 대부분 연도에 전국 경제성장률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계속 낮은 성장세를 보임. '19년에는 '18년에 이어 저성장 기조에서 서서히 벗어날 전망
- 성장률은 2.0%에 전망되고, 건설투자를 제외한 제반 지표들이 지난해에 비해 호조세로 돌아설 전망. 지난해 선박수주량 증가에 이은 설비투자 확대에 민간소비와 수출 입까지 연계될 전망

저성장 기조에서 서서히 벗어날 전망

표 3. 2019년 경남경제전망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 성장	GRDP성장률	0.9	2.0	1.0	0.4	0.2	1.5	1.9°	2.0°
	민간소비	2.6	2.4	2.2	2.6	2.5	2.3	2.2°	2.5°
	건설투자	-1.3	13.1	-4.2	15.5	2.1	6.1	-4.4°	-5.6°
	설비투자	12.8	-5.0	2.7	-3.8	3.6	21.1	4.0°	2.8°
고용	실업률	1.9	2.1	2.5	2.6	3.3	2.9	3.0	3.0°
물가	소비자물가	1.9	1.3	1.4	0.6	0.9	1.6	1.4	1.4°
대외 거래	수출	-15.0	-7.3	-1.4	-8.1	-3.7	33.4	-32.3	4.1°
	수입	-6.1	-6.7	-5.9	-21.6	-18.6	2.1	16.0	3.7°

주) °는 예측한 전망치임.

### 4. 도내 주력 제조업 및 1, 3차산업 업황전망

#### 2019년 경남경제 전망

- 기계·금속·비금속제조업은 '17년, '18년 업황에 비해 다소 침체
-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수주량 회복세, 설계 등으로 수주와 생산간 간극 때문에 경기 전환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전망
- 항공산업과 수송기계부품업은 일정 수요와 수익성 기대됨

#### 미래산업과 IT·가전업

- 나노융합기술, 방위산업 업종과 IT가전산업 중 가전과 전기장비업은 경기가 비교적 밝을 것으로 전망
- 해양플랜트는 발주량과 수주잔량 회복기 및 전력플랜트 부문은 해외발주량 감소로 기존 수주량에 의존될 전망
  - － 해양플랜트는 석유감산과 유가상승 폭이 미국의 에너지원 개발규제 완화에 의한 과다생산과 겹쳐 발주량이 낮을 전망이나 오일 메이저의 미래대비 발주확대 예상
- ICT의 기계산업 융복합화로 회복 가능성 있으나 도내 관련업 기반이 적음

도내 주력업종별 추세와 과제 및 업황전망은 밝지 못한 편

표 4. 기계·금속제조업 전망

업종		주요 특징	전망		
기계·수송 기계 제조업	기계장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EU권 수요 부진. 동남아 설비기자재 기대</li> <li>▶ 건설기계 부진, 공작기계 해외수요와 중전기계 수주량 회복세. 한중FTA효과 소진으로 다소 고전. 스마트공장화로 설비개선</li> </ul>		☁	
	수송기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완성차 내수·수출시장 어려움. EU권 소형SUV시장 확대, FTA에 의한 외국산 유입과다로 성장세 둔화</li> <li>▶ 일본, 중국 등 도내산 부품수요 일정 기대. 친환경차 내수보급</li> </ul>	☀ ☁		
	건설 중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성장률 둔화와 자국생산기반 강화로 건설기계 수출 위축</li> <li>▶ 건설장비 부품교체기, 국내건설경기 '17년 이후 지속침체로 보합</li> </ul>		☁ ☂	
금속·비금속 제조업	금속제조 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안정적 회복</li> <li>▶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철강금속의 전방산업 중 조선업 회복세에 따른 금속제조가공업 기대</li> </ul>	☀ ☁		
	비금속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시장 원료가격 안정화로 도내생산 다소 호전</li> <li>▶ 국제시장가격 하향 안정세와 전반적 경기둔화 여파 영향 지속</li> </ul>		☁	
전통산업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 하락과 신차 출시로 심리적 안정과 내수시장 기대와 경기불안으로 내수감소 및 수입과다, 가격경쟁력 저하로 위축 혼선</li> <li>▶ 미·EU시장불안, 세계시장 경쟁강화,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시장 불안요소 커짐. 창원GM 소형차와 부분품 일정 성장유지 전망</li> </ul>		☁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주증가세, 대형업체 기지개와 중소조선기자재업체 위축, sx와 성동에 따른 영향 클 전망. 선박금융환경 개선, 수주량 지속증대</li> <li>▶ 배출가스 규제장치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의무화로 기술우위의 도내선박 플러스 수주와 플러스 성장 기대</li> </ul>		☁	
	항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 고등훈련기 해외수출 불확실, 복합소재 활용증가 등으로 전망 불투명. MRO 및 항공부품 해외수요 확대 기대</li> <li>▶ 부품소재 인증확대로 세계 수출시장 확대 전망</li> </ul>	☀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 하방안정, OPEC 생산 감축 등으로 석유화학 수출입 원활</li> <li>▶ 원가하락으로 합성수지와 합성연료 수출증대, 합성고무 부진 가능성. 정제석유는 수출량 지속</li> </ul>	☀ ☁		

주) ☀(경기 활황신호), ☁(경기보합 가능성), ☂(경기불황), ☀☁(경기의 호황과 보합) 내지 ☁☀(경기 보합과 호조), ☁☂(불황 중 기회가능성) 등을 각각 나타냄.

표 5. 미래산업과 IT·가전업 전망

업종		주요 특징	전망		
미래산업	해양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시장 수요와 잠재력 많지만 유가하락과 산유국 생산 저감에 따른 해양플랜트 기자재 발주량 변동 있음</li> <li>▶ 미래 부존자원량 부족에 대비한 오일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 가능성은 큰 편임. 도내 빅2의 추가 수주도 기대됨</li> </ul>		☁	
	항노화·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개발과 창업, 건강산업 발전 및 한양방 스타기업 기대</li> <li>▶ 경남 연구특구 지정 등 의생명·바이오산업 육성외지로 회복 전망</li> </ul>		☁	
	전력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전력/원전플랜트 등 산업수요 많으나 한울3,4호기 중단</li> <li>▶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량 경직, 도내 관련기업 어려움 가중</li> <li>▶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기자재산업 활성화 기대</li> </ul>		☁	
	나노·융합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노기술의 전산업 융복합화로 확대, 나노기술개발 예산확보와 교육, 연구개발, 산단 조성 및 실용화센터 구축 등 기획 확대</li> <li>▶ 전기·재료·세라믹 등 도내 국책연구기관과 기업간 협력 기대</li> </ul>	⚙		
	방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예산 확보와 방위력 현대화</li> <li>▶ 방산부문 전장(電裝)강화로 인한 도내 관련업 기대</li> <li>▶ 남북교류 강화와 전작권 이관대비 방위부문 확충으로 산업 기대</li> </ul>	⚙		
IT·가전업	정보통신기기·반도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컴퓨터주변기기 등 생산기반 해외이전으로 국내 기기류어려움. 도내 생산설비/기자재 수요 및 R&amp;D 발전 동인 상존</li> <li>▶ 반도체 설비수요 증대로 제한적 수요발생</li> </ul>		☁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가전으로 고가의 상품생산 증가(에어컨,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FTA효과 증대예상</li> <li>▶ 신 NAFTA에 의한 대미수출 일정제한 소지 있음</li> </ul>	⚙		
	전기장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신재생, 건설경기 등과 연계해 일정 성장세 전망</li> <li>▶ 자동차와 선박 등 ICT융합전장(電裝)업 활성화로 신수요 예상</li> </ul>	⚙		

주) ⚙(경기 활성화), ☁(경기보합 가능성), ⚡(경기불황), ⚙☁(경기의 호황과 보합) 내지 ☁⚙(경기 보합과 호조), ☁⚡(불황 중 기회가능성) 등을 각각 나타냄.

## 부품소재와 원자재 전망

- 부품소재 및 원자재 부문은 창의적이고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 주력
- 자동차부품은 어려움 예상, 내연기관 부분품 경쟁력 저하 소지 큼
- 금속과 철강류 수출과 내수증가세 기대

### 서비스산업 전망

- 제로페이/지역화폐 도입으로 재래시장, 소상공인 지원하나 여전히 힘들
- 건설업은 SOC사업예산 축소 및 주택경기 저하로 고전 전망. 예타 면제사업 확대에 의한 사업 추진시 반전 기대
- 연구개발 분야는 창업, ICT융복합화, 스마트공장 확대 추진으로 솔루션기업의 연구개발 동시에 증대 가능

### 농축수산업 전망

- 개방효과 다소 있음. CPTPP 미가입으로 생산자는 상대적 긍정적
- 도내 1차산업 업황은 2018년과 같이 흡사하면서 일부 품목은 다소 호전 전망
- 품목별로 본 축산농가, 어가의 영향은 지난해와 비슷, 보험세 유지 전망

## 5. 경제주체별 대응방안과 당면과제

### 가계부문

- 합리적 소비진작, 자영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사회안전망 동반활성화
- 금리인상 대비 가계부채 관리. 합리적 소비진작 동시 모색
- 경기, 정책과 대책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의연하게 대처
- 일자리 불안과 임금불안 가중, 가계 구성원의 직업관, 일의 즐거움 갯출 필요 있음

### 기업부문

- 조립, 가공에서 소재, 부품의 원천기술개발로의 구조전환기반 강화
- 도전적 기술개발과 공장자동화(스마트팩토리)로 작업장별 재구조화
- 시장다변화 추구 및 수출관리 철저
- 도내 전업종 ICT융복합화/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기술 접목
- 자동차부품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연료전지, 자율주행 등으로 전환, 비상
- 기업별 외환관리 철저. 수출에 따른 외화가득액 불안정 대비
- 기업가정신 함양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로 고용확대

### 노동계 · 기업 · 경남도 등 노사부문

-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 소비확대와 건전 노사문화정착
- 노사민정협의회 강화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산업육성 큰 목적 합의 추진
- 장년층 재고용, 재교육, 일자리나누기, 직업전환교육과 사회적일자리 추진
- 조선기자재 관련 '경남형 일자리모델' 개발 접목과 타 업종 확산
- 시장중심경제와 사회적경제 기반확충으로 미래 대비

펀드멘털 강화, 첨단신기술  
융복합화, 총수요관리형  
지방재정정책, 시장과 사회적  
경제 조화 육성, 수출입 관리  
등 지역의 국제통상 강화,  
남북교류협력 기반확충 등  
필요

## 지방정부(도) 부문

- 미래 기술기반 강화. 지역의 기술원천인 지식기반 확충
- 기술혁신과 기술융복합화로 미래성장동력 지속 확대정책 확립
- 조선해양플랜트 수주전담반 가동
- 재정 조기집행과 실물경제 진단 철저(주택경기, 빈집과 전세난)
- 정부의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정책의 지역정착화 필요

## 당면 중점과제

- (펀드멘탈 강화) 도내 제조업 업종별 펀드멘탈 강화
  - － 기술기반 확충, 소재·부품 중심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친환경·안전·스마트선박건조기술 개발과 건조 적용으로 고부가가치화, 내연기관시스템에서 무인·인공지능·자율주행중심 자동차 기술전환,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기반 강화, 전력플랜트 경쟁력 강화, 10년 후 항공부문 먹거리 기술품목 확보 등
- (첨단신기술 융복합화) 전업종 대상 4차산업혁명 신기술 개발, 이전, 접목, 융합, 복합화 전개
- (총수요관리형 지방재정정책) 도내 자금 최대 확보
- 첫째, (업종별 특화) 도내 제조업 업종별 펀드멘탈 강화
  - － 기술기반 확충 : R&D 제고, 연구특구 지정과 육성, 과학기술기반 확충, 지식생태계 구축
  - － 조립, 가공에서 소재·부품 중심 원천기술 개발과 확보로 전환
  - － 조선·선박 : 일본과 후발경쟁국인 중국이 추월하기 힘든 친환경, 안전, 스마트선박건조기술 개발과 건조적용으로 고부가가치화
  - － 수송 및 자동차부품업 :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무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중심 기술전환.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경제기반 강화
  - － 원전, 전력플랜트 경쟁력 강화 : 지구온난화 방지, 안전기술 강화로 자체 기술개발과 노력. 시장개척
  - － 항공 : 10년 이후의 미래 먹거리 기술, 품목, 시장 등 확보
- 둘째, (첨단신기술 융복합화) 전업종 대상 4차산업혁명 신기술 개발, 이전, 접목, 융합, 복합화 전개
  - － 도내 전 제조업종에 AI, 5G,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로봇, 스마트센서, 3D 등의 보급과 적용 시급
  - － 초지능화 및 초연결형의 제조업 기반 확충,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과 업그레이드 지속
  - － 관련 인력(개발, 접목, 이전, 운용) 양성과 확보
  - － 치밀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신산업구조로의 이행 필요
- 셋째, (총수요관리형 지방재정정책) 도내 자금 최대 확보
  - － 가계소비, 제조업 생산여력 확충, 건설업 활기, 서비스업 활황 등
  - － 지난 약 5년 정도 매년 약 30-40조 정도의 지역자금공급이 사라짐. 도내 조선 3사의 30조 이상 연간 수주액이 중단됨

- 정부 부처별 시도 사업예산 최대 확보 : 서부ktx, 신항만, 남부권신공항, 도로, 도시재생사업, 농산어촌사업, 문화관광예산 등
- 예산 조기집행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지역경기 진작
- 넷째, (시장과 사회적 경제 조화 육성) 기업과 제조업 육성에 의한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영역의 조화로운 육성
  - 사회적경제 확대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확충
- 다섯째, (수출입 관리 등 지역의 국제통상 강화) 수출 감소 대비전략 강화
  - 보호주의 팽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국제원자재 및 국제유가 하락
  - 생산현지화 확대 대비 시장개척, 도내 기업의 다국적화 육성 필요
-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확충) 미래투자를 경남산업경제 도약이라는 현실로 확산
  - 철도, 도로, 전력부문 협력과 도내 관련 제조업종의 동반 육성
  - 북한 원자재 반입과 이의 연구개발 확대,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윈-윈의 경남 대북교류협력 강화

#### [참고문헌]

BNK 금융경제연구소(2018.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BNK 경제인사이트.  
 LG경제연구원(2018.09.20),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0.9), “‘18.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1.21),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김윤기 외(2018.10),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국회예산처.  
 김현욱 외(2018.11), “201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Vol.35 No.2, 한국개발연구원.  
 민성환, 이임자(2018.11), 「2019년 경제·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안성배 외(2018.11.02), “2019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원 외(2018.12.14),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경제주평」, 통권 823호,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2018.10), 「경제전망보고서」.

G-Brief(Gyeongnam-Brief)는 경남의 경제·사회 전망, 주요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국내외 선진정책·제도의 소개 및 정책제언을 콤팩트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전 화 055-267-7447 FAX 055-266-2079 [www.gndi.re.kr](http://www.gndi.re.kr)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경남발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